

### 영암, 귀향인·농촌유학생 집 리모델링 추진

최대 4000만 원씩 지원

영암군이 귀향인, 농촌유학생과 그 가족 등이 살아갈 '2023년 도시민 생활주택 수리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영암군의 이번 사업은 도시민 유입, 농촌 활력 등을 위한 취지로 13곳을 선정해 총 5억 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귀향인 주택 수리 지원사업'은 영암군 전입 5년 내 귀향인의 주택 수리에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3곳을 선정한다.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군 내 집에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10곳을 모집하고 수리 후에는 농촌유학생에게 임대하는 조건이다.

각 주택의 리모델링 범위는 창호·도배·장판 시공, 방수·단열 작업, 배수시설 개선 등 포괄적으로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사업신청서, 소유 사실 증명서류 등을 갖춰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영암·김형두 기자

### 진도아리랑상품권, 15일까지 일시 사용 중단

조폐공사 시스템 개선

진도군이 발행한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오는 12일 0시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사용이 일시 중단된다.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지류형 상품권은 구입과 환전이 불가하고, 환전은 9일부터 중단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역 상품권 chak 어플 접속이 불가해 충전, 결제, 환불, 가맹점 정산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다.

상품권 사용 일시 중단은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chak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것으로 전국

90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이용이 동시에 일시 중단된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사용자 불편과 가맹점 어플로 이분화됐던 서비스가 통합되고 상품권 충전·결제 등 서비스의 속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은 그동안 불편했던 기능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상품권 서비스를 개선 위한 조치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 강진,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4개 전략·16개 실천 과제·77개 세부 사업 추진

강진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근 '인구감소 대응 5개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진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남도답사 1번지, 글로리 A 강진'을 비전으로 삼고, 4개 전략, 16개 실천 과제를 도출해, 인구소멸 위기에서 탈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실제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 투트랙으로 지역소멸을 저지한

다. 먼저 은퇴자와 귀농·귀촌인 등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해 ▲신규마을 조성사업 ▲주택 신축 지원사업 ▲빈집 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강진 푸소 체험 운영 ▲푸케이션(푸소+워케이션) 운영 ▲병영 불금불과 축제 개최 등 관광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역 연계형 사업으로 ▲강진-광주 동구와 함께하는 지역 연계 & 협력 사업 ▲지역상생 강해영(강진·해남·영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밖에 ▲구 성화대학 활용 문화융합창업 플랫폼 구축 ▲사이버 군민 제도 운영 ▲각종 지원센터(맘편한센터, 늘봄센터, 어울림센터) 운영 등 모두 7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강진=한홍수 기자

## 완도,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소비 활성화 기대'

###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 안정적 출하·가공·유통 체계 마련

완도군에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건립됐다.

군은 지난 8일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 출하, 가공, 유통을 책임지는 복합공간인 완도농협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사회·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 보고와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완도농협 복합유통센터'는 2021년도 군특 사업으로 '농촌자원 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사



업비 20억(국비 10억, 군비 5억, 자부담 5억)을 들여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4,241㎡ 부지에 복합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사무동 등을 갖추

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농특산물 판로를 더 넓힐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군에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로 더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고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완도농협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미남 완도농협조합장은 "유통센터가 완도를 대표하는 산지 유통 조직으로써 자연 그대로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 취급 확대와 저장 및 상품화 시설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완도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이두식 기자

### 신안 도초도 수국정원서 '섬 간재미·수국축제' 함께 개최

오는 16일부터 3일간 개최...문화·전시·공연 가득

신안군은 도초도 바다 위 수국정원에서 섬 간재미축제를 섬 수국축제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간재미는 비금·도초권 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어종으로, 맛이 뛰어나 매년 도초도에서 축제를 열고 있다.

이번 간재미축제는 간재미 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국립오케라단의 축하공연, 간재미 냉두부만 나눔행사, 공연과 미식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미식공연, 수국꽃 길 걷기행사, 수국 회화전, 수국 사진 경연, 거리공연 등 문화와 전시·공연행사가 가득하다

특히 올해에는 1004만 송이 수국꽃과 함께 개최해 불거리·줄길거리·떡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신안 간재미는 주낙어벌로 잡아 상처가 적고 싱싱하며, 식감이 좋아 간재미 무침, 찜, 매운탕 등으로 인기가 좋다.

제철에 잡힌 간재미는 단백질 등 영양분도 풍부해 병후 회복이나 허약체질에 영양 보충식으로 좋으며, 원기강화 및 항암작용 등이 왕성하고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군에서는 간재미 어선 8척이 연간 20t을 잡아 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5월 홍어·깡다리·낙지축제와 6월 병어·간재미, 8월 민어, 9월 불볼락·왕새우·우럭, 11월 새우젓 등 가장 맛있고 많이 잡히는 제철에 맞춰 지역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신안=박정래 기자

목포, 1897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자 모집

목포시는 '1897 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목포에 활력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97 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목포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투어와 골목길 상권 투어를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지역 주변 전통시장과 특산물, 지역 관광 명소 등을 연계해 도시재생·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업 신청은 1897 개항문화거리 탐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목포시 소재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투어'를 주제로,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탐방·체험 코스를 개발 및 수립해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예산은 1개 프로그램 최대 2,500만원 지원으로 총 2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17:00까지)로, 공모주제 중복 여부 및 적합성 등 1897 개항문화거리 현장지원센터에 사전자문을 완료한 후 방문 제출만 가능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목포=김근호 기자

### 해남 '농업도 탄소중립' 저탄소 벼 재배 확산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확대 실시... 모내기 한창

해남군이 저탄소 농업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계곡면 일원에 실시하고 있는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마산면까지 확대해 뜯심 일원 친환경 단지 107.6ha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계곡면 126.4ha 552필지 면적에서 80여개 농가가 참여해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 보급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마산면 연구리 학의영농조합법인에서 뜯심 일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모내기 단계에서부터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저탄소 농업 관련 맞춤형 농가 교육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감축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인 땅광황도친환경 영농조합에서도 산이면과 현산면에 기후변화대응 연구용 시범포를 운영하는 등 저탄소 가능성 쌀 생산을 위한 관

심이 확산되고 있다.

저탄소 농업이란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 방법 및 기술로서,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군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 경영이자, ESG 탄소중립의 실천인 저탄소 농업경영을 통해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허브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 2022 행복해남!

# 해남형 ESG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가요!

탄소 중립도시 완성

### 청정해남



**환경 Environment**

기후변화대응 | 친환경 | 탄소저감

안전망 구축

### 함께해남



**사회 Social**

안전망 구축 | 경제활력 제고 | 교육·공동체 육성

공정한 윤리경영

### 청렴해남



**지배구조 Governance**

청렴한 공직문화 | 혁신과 참여행정 | 건전재정